

《遺教》의 書誌와 文學的 性格

李昇復*

- | | |
|--------------|------------------|
| 1. 序 言 | (2) 夢窩, 竹醉와 辛壬士禍 |
| 2. 書 誌 | 4. 文學的 性格 |
| (1) 異本 對比 | (1) 敘述的 特性 |
| (2) 作者 | (2) 內容的 特性 |
| 3. 歷史的 背景 | 5. 結 語 |
| (1) 文谷과 已巳換局 | |

1. 序 言

《遺教》는 文谷 金壽恒, 夢窩 金昌集, 竹醉 金濟謙의 祖, 父, 孫三代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의 상황을 기록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 國文 筆寫本 자료집이다. 여기에 실려있는 세 편의 글들은 ‘遺教’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죽음에 임하는 조상의 모습을 통해 자손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교훈을 얻을 자손의 범위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글들은 단지 이러한 효용적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정된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마주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간이란 파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遺教》는 단순한 史實 기록 이상의 문학 작품이다. 이에 本考에서는 《遺教》의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조선후기 實記文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遺教》는 文谷과 夢窩의 후손들에게 世傳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文谷의 季子 澤齋 金昌立의 11代孫인 金忠顯씨가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夢窩, 竹醉에 관한 두 편의 글만을 모은 《壬寅遺事》가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으며,¹⁾ 夢窩에 관한 글의 한문본인 〈星山遺事〉가 또한 現傳하고 있다. 이에 우선 《遺教》의 書誌를 《壬寅遺事》, 〈星山遺事〉와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작품 내용의 이해를 위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 다음, 그 문학적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筆者: 서울大學校 奎章閣 特別研究員

1) 서울大學校 奎章閣本 《壬寅遺事》(가람 古 923.251 G415g)는 현재 영인되어 있는, 金元行의 文集인 《渼湖全集》(驛江出版社, 1986)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2. 書 誌

(1) 異本 對比

《遺教》는 가로 21cm, 세로 32cm의 크기에 총 118面으로 되어 있으며, 가로 16cm, 세로 26cm의 筆寫面에 반흘림체의 국문 글씨가 每面 10行에 每行 15~18字 정도로 가지런히 필사되어 있다. 체제를 보면 文谷, 夢窩, 竹醉의 三代에 대한 紀事が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文谷에 대한 부분에는 ‘괴스유소’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夢窩와 竹醉에 대한 紀사는 각기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서두에는 ‘임인유교’라는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이에 편의상 이하의 논의에서는 夢窩와 竹醉에 대한 기사를 각각 ‘임인유교1’, ‘임인유교2’라고 구분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인유교1〉과 〈임인유교2〉는 異本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壬寅遺事》는 표지에 ‘壬寅遺事’라는 表題 옆에 ‘夢窩星州遺教 附竹醉富寧遺教’라는 작은 글씨가 써어 있는데, 〈夢窩星州遺教〉와 〈竹醉富寧遺教〉는 각각 〈임인유교1〉과 〈임인유교2〉의 내용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夢窩星州遺教〉는 본문 첫장에 卷首題가 따로 없고, 〈竹醉富寧遺教〉는 본문 첫머리에 ‘선고유교’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卷末에는 〈선고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끝에 “임인 사월 이십사일 안보서 원횡 뼈 주오신 거시라”라는 기록이 있어 竹醉가 1722년 4월 流配地인 蔚山에서 서울 鞠廳으로 압송되던 중 아들 漢湖 金元行에게 써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임인유교2〉의 내용 중에도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 老稼齋 金昌業의 아들이며, 夢窩의 조카인 檜巢 金信謙의 문집, 곧 《檜巢集》 권10에 〈임인유교1〉의 한문본인 〈星山遺事〉가 수록되어 있다. 이 〈星山遺事〉는 《檜巢集》을 발췌하여 엮은 《檜巢稿》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따라서 현재까지 文谷에 대해서는 〈괴스유소〉 한 편이, 夢窩에 대해서는 〈임인유교1〉, 〈夢窩星州遺教〉, 그리고 한문본 〈星山遺事〉 등 세 편이, 竹醉에 대해서는 〈임인유교2〉와 〈竹醉富寧遺教〉의 두 편이 각기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서 이들 異本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서울대 奎章閣 所藏 《檜巢稿》(奎 7355)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는 表目이 ‘夢窩先生實記’로 되어 있다. 卷首에 ‘後學海嶠朴永世敬讀’이라 적혀 있는 漢文 筆寫本인데, 〈夢窩先生實紀〉, 〈夢窩遺事〉, 〈星山遺事〉, 〈百六哀吟〉을 차례로 수록하고 있다. 이는 《檜巢集》 권2의 〈百六哀吟〉, 권9의 〈伯父夢窩府君行狀〉, 권10의 〈夢窩府君遺事〉와 〈星山遺事〉를 순서만 바꿔 그대로 轉載한 것이다.

1) 〈임인유교1〉과 〈夢窩星州遺教〉·〈星山遺事〉

수월 스무 달 웬 날 성취서 머무더니 새야을 째의 당탁이 민판서-딘원-곳으로서 와 나르디 앗가 디나가는 공소를 보니 거제 후명도시 시방 쏘차온다 호거늘 내 물을 치축호야 전진호다가 십 니를 못 가 흉초를 만나니 부군이 가솔 벼스시고 총감토만 쓰시고 두에 업순 가마의 안자 겨신디 흰 자리보로 두루와더라(〈임인유교1〉). 띄어쓰기·밀줄; 필자, -; 注雙行, 이하 같음.)

임인 수월 스무 달 웬 날 성취서 머무더니 새야을 째예 당탁이 민판서-딘원-곳으로서 와 널오디 앗가 디나가는 공소를 보니 거제 후명도시-후명도소의 일홈은 표문보라-라 시방 쏘차온다 호거늘 내 물을 치축호야 전진호다가 십 니를 못 가 흉초를 만나니 부군이 가솔 벼스시고 총감토만 쓰시고 두에 업순 가마의 안자 겨신디 흰 자리보로 두로왓더라(〈夢窩星州遺教〉)

위는 〈임인유교1〉과 〈夢窩星州遺教〉의 서두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夢窩星州遺教〉의 원문에는 ‘임인’, ‘수월’, ‘성취’, ‘민판서’, ‘딘원’의 옆에 한자가 併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漢字 併記는 위의 인용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이후에는 “남희 상공”³⁾에 ‘疎齋’라는 한자 주가 添記된 경우가 하나 있을 뿐이다. 위의 인용문을 비교해 볼 때 내용면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첫구절에 ‘壬寅’이란 干支와, 後命都事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이와, ‘째의’와 ‘째예’, ‘나르디’와 ‘널오디’, ‘쓰시고’와 ‘쓰시고’, ‘두루와더라’와 ‘두로왓더라’와 같은 표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干支가 제시되어 있고, 注가 더 달려 있다는 점에서 〈夢窩星州遺教〉가 〈임인유교1〉보다 자세한 서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문 서술 가운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겸득려 나르시디 비돌흘 장동 본집 대문 안희 무더시니 승지 알고 종도 그 곳을 아니니 이시니 후의 파내게 호여라 네 아바님이 이전의 한산대부 묘표호라 호야 돌을 구호거늘 이는 평구 몽와의 무든 거슬 주랴 호더니 너희 가져니거라(〈夢窩星州遺教〉)

위의 밑줄 친 부분이 〈임인유교1〉에는 빠져 있다. 따라서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임인유교1〉보다 〈夢窩星州遺教〉가 좀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문본 〈星山遺事〉는 〈임인유교1〉이나 〈夢窩星州遺教〉와 같은 국문본보다 좀더 자세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는 앞의 인용문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 夢窩가 流配될 때 같은 老論 四大臣의 한 사람인 疏齋 李顥命은 南海로 流配되었었다.

謂信謙曰 碑石埋於壯洞本家大門內數步地 承旨知之 奴輩亦當有知其處者 日後必掘出 汝爺
曾爲韓山大父墓表求石 此則欲以平丘夢窩所埋者與之矣 汝輩取去可也

〈夢窩星州遺教〉에만 있는 ‘승지 알고 종도 그 곳을 아느니 이시니’에 해당하는 ‘承旨知之 奴輩亦當有知其處者’라는 서술이 있을 뿐 아니라 〈夢窩星州遺教〉에서는 단순히 ‘대문 안히’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 〈星山遺事〉에는 ‘大門內數步地’라고 하여 좀더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星山遺事〉가 국문본보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미세한 부분의 서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夢窩는 臨命時에 모두 7편의 詩를 지었다. 그런데 국문본에는 傳旨 듣기를 재촉하는 後命都事を 두고 읊은 시 한 편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6편에 대해서는 “즉시 부슬 드러 글 둘흘 쓰시니 오언눌시는 쪽을 뵈시미오 오언고시는 승지색 브치신 글일너라”, “부군이 즉시 그 글을 촉운흐여 보내시고”, “부군이 오언고시 혼 편을 지어 뼈주시고”, “굵 읊 때에 선왕고 님명 때 칠언절구를 촉운하시고 누어 입으로 불너 신겸 혼여 쓰이시고 이윽호야 니불을 두루고 니려안자 손조 칠언눌시 혼 편을 쓰시니”라고 하여 시를 지은 사실과 그 때의 상황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 정작 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星山遺事〉는 그것을 모두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夢窩가 직접 시 아래에 쓴 ‘壬寅四月念七日父在星州’, ‘壬寅孟夏下浣夢窩’와 같은 기록까지도 다 밝혀 적고 있다. 국문본에 이 시들이 생략된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단지 漢詩를 國文으로 품만 적어 놓는 것은 아무리 注를 달아 풀이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고, 더구나 국문본은 여자나 한문에 익숙치 않은 어린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문으로 음만 적은 漢詩를 굳이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⁴⁾

이처럼 내용상의 차이는 큰 없으나 〈임인유교1〉보다는 〈夢窩星州遺教〉가, 또 그보다는 〈星山遺事〉가 좀더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사자의 고의나 실수에 의해 〈임인유교1〉에는 서술되어 있으나 〈夢窩星州遺教〉나 〈星山遺事〉에는 빠진 부분들이 있다.

쓸 아래로 나아가 소비하고 면지를 드르신 후 쏘 소비하시고 텅의 올나 상후의 안부를
무르시니 도식 두렷” 혼고 디답디 못호거늘 민창숴 섬 아래 셔셔 천세” 혼니 도식 그대로
디답호더라(〈임인유교1〉)

용겸이 안기리를 쳐기 멀니 혼엿더니 이에 손을 달나 혼여 쥐엿다가 노흐시고 묘말진초의
고종호시다(〈임인유교1〉)⁵⁾

4) 시를 지었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거소유소〉나 〈임인유교2〉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인용문에는 傳旨를 들은 夢窩가 王의 안부를 묻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都事에게 민창수가 대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星山遺事〉에는 “乃就庭下四拜後聽宣旨 又四拜上廳 問上候安否”라고만 되어 있어 都事에 대한 서술이 빠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누락으로 보인다. 임금의 명을 전달하면서도 임금의 안부를 묻는 물음에 대답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都事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집안의 자손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 국문본의 경우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대외적인 성격이 강한 文集에 수록되는 글의 경우에는 점잖지 못한 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의 인용문은 傳旨를 들은 夢窩의 臨終 장면 부분이다. 그런데 〈夢窩星州遺教〉에는 “용결이 안기울 쪘기 멀리 헛앗더니 이에 손을 달라 헛야 쥐엿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쥐엿다’에서 문장이 끝난 것으로 여긴 轉寫者의 실수에서 빚어진 누락인 것이다.

2) 〈임인유교2〉와 〈竹醉富寧遺教〉

①

- 언남이 영만이 돌몽이 춘선이 삼원이 거리쇠 입으시던 옷 각” 호나식 주시고…(〈임인유교2〉)
- 언남이 영만이 돌몽이 춘선이-춘선이~~는~~ 독낙명~~퇴~~ 종이라 삼원이-삼원이~~는~~ 창설~~되~~ 종이라 거리쇠 넘으시던 옷 각” 호나식 주시고(〈竹醉富寧遺教〉)

②

- 이제 죽으면 석증 어미도 사디 못 할 거시니 석증이를 어이 헛며 이 아희들 보전할 도리도 다 거기 이시니 죽디 아녀야 헛리라(〈임인유교2〉)
- 이제 죽으면 석증 어미도 차디 못 할 거시니 이러 헛면 석증이를 어이 헛며 석증이~~를~~ 보전티 못 헛면 선조 제수를 삼되재 내려와 쳐려 결수 헛을가 이 아희들 보전할 도리도 다 거기 이시니 죽디 아녀야 헛리라(〈竹醉富寧遺教〉)

③

- 또 술오되 한아바님 횡장을 굿틀 못디 못호야 겨시니 엇디호리잇가 바회와 의논호야 낫게 호라 쏘 술오되 형님 묘지 디으신 거시 글체 묘표와 그득니 겸호야 묘표로도 쁘면 엇 더호리잇가 부군이 호시되 혹 존비라도 흘가 쏘 술오되 한아바님 횡장과 형님 묘디에 아모 아모 고줄 고첨 죽 호오이다 부군이 호시되 네 보아 고털 거순 고티고 묘디의 호 고준 아직

5) 〈星山遺事〉는 이 뒤에 ‘午時行襲敎 養謙飯舍 李命龍張灌執事 彦謙信謙閔通洙助之’라는 疆襲에 관한 기록을 덧붙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 서술을 지향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흐리우려니와 아조 아니 뽀든 못 허리라(〈임인유교2〉)

· 원횡이 쪼 굴오더 한아바님 횡장을 뭇들 못 허야 겨시니 엇더호오리잇가 뒤답하시되 바
회와 의논허야 낫게 허라 쪼 술오더 형님 묘디 지으신 거시 글체 묘표와 그트니 겸허야 묘
표로도 뽀면 엇더호오리잇가 부군이 허시되 후 존보-檜巢-라도 홀가 원횡이 쪼 굴오더 한아
바님 횡장과 형님 묘디에 아모” 고줄 고첨 즉 허오이다 부군이 나르시되 네 보아 고칠 거
슨 고티고 묘디에 혼 곳은 아직 흐리우려니와 아조 아니 뽀든 못 허리라(〈竹醉富寧遺教〉)

우선 ①에서 〈임인유교2〉는 아무런 주를 달고 있지 않음에 비해 〈竹醉富寧遺教〉는 ‘춘선이’, ‘삼원이’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집 종들인지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 달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竹醉집 종들이라고 짐작된다. ②에서는 〈竹醉富寧遺教〉의 밑줄 친 부분 즉 ‘이러허면’, ‘석증이를 보전티 못 허면 선조 제소를 삼덕재 내려와 쳐려 결스
허올가’가 〈임인유교2〉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문맥으로 보아 있어야 할 것
이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에서는 우선 그 표기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묘지
디으신’과 ‘묘디 지으신’, ‘그트니’와 ‘그트니’, ‘엇더호리잇가’와 ‘엇더호오리잇가’, ‘존
뵈라도’와 ‘존보-檜巢-라도’, ‘아모 아모’와 ‘아모”, ‘고첨’과 ‘고첨’, ‘고털’과 ‘고칠’,
‘묘디의’와 ‘묘디예’ 등이 그것이다. 또 ‘술오더’와 ‘굴오더’, ‘굿틀 뭇디’와 ‘뭇들’, ‘술오
더’와 ‘나르시되’ 등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어휘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竹醉富寧遺教〉는 〈임인유교2〉에는 없는 ‘원횡이’, ‘뒤답하시되’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
하여 문맥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임인유교2〉와 〈竹醉富寧遺教〉는, 〈임인유교1〉과 〈夢窩星州遺教〉
의 비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군데 군데 표기가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는
데 간혹 미세한 부분에 있어 〈竹醉富寧遺教〉가 보다 자세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作者

현재 《遺教》의 편찬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수록된 세 편의 글 가운데 두 편은
작자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임인유교1〉은 그 한문본인 〈星山遺事〉가 《檜巢集》 속에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자손에게 전하여 보이고, 훗날의君子들로 하여금 또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⁶⁾ 기록하였다는 檜巢 자신의 언급이 있어 그 작자가 檜巢 金信謙⁷⁾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인유교1〉의 작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星山遺事〉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그 문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6) 盖欲傳示子孫 而使後之君子亦得以叅考也(《檜巢集》卷十).

7) 〈임인유교2〉에서는 金信謙을 ‘존보(尊甫)', '바회(巴蔚)'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尊甫는 金信謙의 字이다.

수월 스무 달 웬 날 성취셔 머무더니 …… 내 물을 치축하야 전진하다가 십 니를 못 가 헝초 를 만나니 …… 내 물게 누려 길岔의 셋더니 부군이 보 틈으로 놋출 보시고 무려 모르시더 드로니 네 상취셔 머문다 하더니 어이하야 예쓰디 잊는다 딱하야 모르되 토는 듯 답하야 나아왓느이다 도식 빌교즈 뒤히 부릇 셔고 쇼촌 찰방 창발과 니첨디 명농이 그 뒤히 쟁거늘 헝치 쳐기 멀으신 후 신겸이 창발과 니명농으로 더브라 물게 누려 통곡하니 땐에 부군이 후 명 괴별을 미쳐 모르시미라(<임인유교1>)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임인유교1>은 ‘나’라는 1인칭 서술로 시작되지만 곧 이어 ‘나’를 ‘신겸’이라고 바꿔 지칭함으로써 3인칭 서술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3인칭 서술은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 《遺教》와 같은 實記文學에 있어 서술자는 기록자 내지 작자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金信謙’이라는 것은 이 작품의 작자가 곧 金信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임인유교2>와 <夢窩星州遺教>의 경우는 그 말미에 ‘임인 납월 블쵸남 원횡 읍혈 근녹’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1772년(景宗 2) 12월에 竹醉의 아들 金元行이 기록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괴수유소>의 경우에는 아직 작자를 확인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괴수유소>의 내용 중 일부가 文谷의 아들인 農巖 金昌協이 쓴 文谷의 行狀과 三淵 金昌翕이 쓴 <先府君行錄>에 제시되어 있고,⁸⁾ 尤菴 宋時烈이 쓴 文谷의 墓誌銘에 “죽음에 임하여 뜻과 기운이 편안하고 한가했으며, 後事を 처리하고 자손을 훈계함이 자세하고 극진하여 빠짐이 없었다”⁹⁾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文谷 臨命時의 언행은 당시 자손을 비롯한 知人們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괴수유소>라는 제목의 글로 처음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현재 확실치 않다. 단지 “아비-몽와 뜻분- 아비-둘재분 농암- 울며 청하야 올오되”, “춘상-후겸-이 비록 어리나 반드시 능히 성님을 거시니 …… 나상-제겸-이 다른 아히와 다르미 잇고 작인을 쏘 잘하여시니”라는 서술과 그에 달린 주에서 現傳 <괴수유소>의 1차 필사 혹은 기록은 文谷 孫子代의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것은 文谷의 아들인 夢窩와 農巖은 ‘아모’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비해 孫子인 춘상, 이상은 주에서 직접 이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괴수유소>의 작자 구명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現傳하는 <괴수유소>를 처음 필사한 사람은 文谷의 손자인 ‘謙’자 行列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⁰⁾

8) <先府君行狀 下>, 《農巖續集》卷之二。

<先府君行錄>, 《三淵集》卷三十。

9) 臨命 意氣安閒 處置後事 訓戒子孫 繼悉無遺(文谷先生墓誌銘 幷序), 《宋子大全》卷一百八十二。

10) 여기에서 ‘1차 필사’, ‘처음 필사한 사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현전 <괴수유소>가 後寫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歷史的 背景

(1) 文谷과 己巳換局

文谷, 夢窩, 竹醉 三代가 모두 賜死된 것은 己巳換局과 辛壬士禍라는, 西人과 南人, 老論과 少論 사이의 정치적 갈등 때문이다. 이제 賜死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三代의 행적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¹¹⁾

文谷 金壽恒의 字는 久之이고 본관은 安東이다. 左議政 清陰 金尙憲의 손자이며, 同知中樞府事 金光燦의 아들로 1629년(인조 7, 己巳)에 서울 大寺洞(現 仁寺洞)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延安金氏는 延興府院君 金悌男의 손녀인데 文谷은 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조 모 草溪鄭氏에게 양육되다가 12세에 安東으로 내려가 조부인 清陰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清陰이 清에 억류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 와 洋試, 進士試, 謄聖文科에 모두 장원하고 成均館 典籍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 文臣庭試와 重試에 합격하였으며 대제학 蔡有後의 선발로 湖堂에서 南龍翼, 李端相 등과 같이 賜暇讀書를 하기도 하였다. 이 때의 文谷에 대해 同春 宋浚吉은 근래 끗끗하기로는 文谷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나이가 젊고 과격한 것은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孝宗에게 상주하기도 하였다. 文谷은 28세에 通政大夫, 31세에 嘉善大夫, 34세에 資憲大夫, 43세에 崇祿大夫에 올랐으며 44세에 右議政에 제수되는 등 그의 관직 생활은 비교적 순탄하고 빠른 것이었다.

文谷은 관직에 있으면서 尤菴 宋時烈과 함께 西인의 정치적 입장을 주도해 나갔다. 1659년 孝宗이 승하하고 벌어진, 慈懿大妃의 服制를 둘러싼 논쟁은 西人과 南人的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期年服을 주장한 尤菴과 同春을 통렬히 논박하는 尹善道의 상소가 올라오자 당시 都承旨였던 文谷은 윤선도의 처벌을 주장하고, 同春의 낙향을 만류할 것을 주청하였으며, 수년 후 다시 服制와 관련하여 영남 유생들의 상소가 있자 이를 통렬히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1674년(顯宗 15)에 효종비 仁宣王后가 승하하자 다시 慈懿大妃의 服制 문제가 재론되었는데 顯宗은 西인들이 주장한 大功服을 물리치고 期年服을 채택하면서, 대공복을 주장한 西인들을 처벌하였다.¹²⁾ 判中樞府事로 있던 文谷은 자기도 대공복을 주장하였는데 자신만 죄

11) 이하의 역사적 배경은 文谷, 夢窩, 竹醉, 그리고 竹醉의 아들 翠栢軒 金省行에 대한, 《실록》紀事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고, 필요한 경우 기존의 당쟁 관련 연구서(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96)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따라서 일일이 주를 달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실록》에 제시된 연도를 본문에 밝혔다.

10) 이 때 文谷의仲兄인 領議政 金壽興은 春川에 中途付處되었다.

를 면할 수 없다고 상소하였으나 오히려 좌의정에 임명되어 顯宗의 顧命을 받았다. 그러나 뒤이어 동국한 肅宗은 服制 문제에서 南人의 입장을 두둔하고 西人을 배척하여 尤菴을 덕원으로 유배하였다. 하지만 肅宗은 文谷에게 左右相을 번갈아 제수하였는데 그 때마다 文谷은 사직소를 올리며 출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上箚하여, 尤菴이 나라의 명령을 쥐고 威福을 지었다는 南人側의 주장을 반박하고, 大妃의 동정을 照管하라고 주장하는 南人의 처벌을 주장하였으며, 궁녀와 통정한 福昌君 李楨과 福平君 李樞을 獄配 반 년만에 석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논하였다. 이 무렵 복창군 형제가 궁녀와 통정했다는 이른 바 ‘紅袖의 變’이 清風府院君 金佑明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여 곧 석방되자 大妃가 직접 대신들 앞에서 복창군 형제의 죄상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처벌하게 한 일이 있었다. 복창군 형제와 가까웠던 南人們은 이를 두고 대비의 動靜을 照管하라 하기도 하고, 허물을 두 번 짓지 말도록 하라고 한 바 있었다. 文谷의 箚辭를 본 肅宗은 大怒하여 文谷을 靈巖으로 귀양보냈다. 이후 1678년(숙종 4)에 鐵原으로 移配되었다가 1680년(숙종 6) 이를 바 ‘庚申大黜陟’ 때 領議政에 제수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西人이 집권하자 許堅의 역모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獄事들이 일어났고 文谷은 領相으로서 이에 관여하였는데 이 경신년 옥사의 처리가 후일 文谷이 賜死되는 罪目의 하나가 된다. 경신년 옥사에 이어 文谷은 자신의 또 하나의 죄목이 되는 吳始壽의 일을 처리하게 된다. 숙종 1년 南人인 오시수가 遠接使로 청의 사신을 맞으러 갔다가 ‘清帝가 顯宗이 여러 해 동안 병을 앓는 중에 强臣에게 견제받아 일마다 자유로이 하지 못하다 갑자기 승하한 것을 懚然해 하여 두 번 致祭토록 하였다’는 말을 중국측 通官 張孝禮에게서 들었다고 함으로써 조정의 논란이 비등한 적이 있었다. ‘庚申換局’ 후 肃宗과 西人們에 의해 그것이 오시수가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 드러나 오시수가 賜死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文谷은 장효례를 직접 만나 오시수 말의 眞偽를 확인하고 오시수의 처형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어 1682년(숙종 8) 南人们이 역모를 했다는 金煥과 金重夏의 告變이 있었는데 어영대장 金益勳이 이들의 고변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젊은 대간들이 김익훈의 推考를 주장하였는데 文谷은 김익훈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서울로 올라온 尤菴이 文谷에 동조함으로써 대간들과의 사이가 점차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尤菴과 尹拯의 사제간 불화와 연결되어 西인이 老論과 少論으로 나뉘게 된다. 이 때 老論의 입장에 선 文谷은 尹拯을 비판하고 尤菴을 지지함으로써 崔錫鼎과 같은 少論의 논칙을 받기도 한다.

1686년(숙종 12) 肃宗이 後宮을 간택하면서 文谷의 伯兄 谷雲 金壽增의 손녀를 淑儀로 내정하였는데 文谷은 從孫女가 어릴 때 배를 많이 앓아 生產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였으나 肃宗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종손녀가 후궁이 됨으로써 훗날 文谷은 궁중과 내통하였다는 죄목을 하나 더하게 된다. 1687년(숙종 13) 文谷과 左議政 李端夏가 右議政 卜相 단자를 수차 올렸음에도 肃宗이 계속 다시 擬望하라 하자 文谷과 李端夏가 入

對하여 숙종의 의중을 확인한 다음 새로 擬望하여 趙嗣錫이 右議政에 임명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文谷은 사직하고 수차에 걸친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689년(숙종 15, 己巳)에 肅宗은 반대를 무릅쓰고 후궁 장씨가 낳은 아들을 서둘러 元子로 책봉하였는데 원자책봉이 너무 이르다는 尤菴의 상소가 올라오자 이를 계기로 숙종은 西人을 물리치고 南人을 등용하는 '己巳換局'을 단행하였다. 이 때 領敦寧府事였던 文谷은, 尹拯을 비판한 이진안을 구원함으로써 시비의 논의를 어그러지고 격렬하게 한 바 있다는 구실로 일차 파직된 다음, 南人們의 계속되는 주청에 의해 珍島로 유배되었다가 4월 9일 賜死 되었던 것이다. 이후 1694년(숙종 20)에 復官되고 文忠이란 시호가 내렸다.

(2) 夢窩, 竹醉와 辛壬土禍

夢窩 金昌集은 文谷의 여섯 아들 가운데 長男으로 字는 汝成인데 1648년(仁祖 26)에 태어났다. 竹醉 金濟謙은 夢窩의 獨子로 자는 必亭이며 1680년(肅宗 6)에 태어났으며 숙부인 三淵에게 수학하였다. 부자 모두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이를 역시 당시의 정치적 갈등과 먼 거리에 있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夢窩는 숙종 12년 宮人 張氏를 물리치라는 李徵明의 상소가 올라와 숙종이 대노하였을 때 入對를 청하기도 하고, 이징명이 약직되었을 때에는 임금의 처사가 지나침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이후 주로 弘文館과 司諫院의 직책을 역임하다가 부친 文谷이 賜死되자 벼슬길에서 물러나 있었다. 1694년(숙종 20, 甲戌)에 남인들이 물러가고 서인들이 등용된 '甲戌換局' 이후 다시 관직에 나왔는데 이조판서에 임명되자 顯要職에 있지 말라는, 亡父의 遺訓을 들어 사직하였다. 이에 숙종은 사당에 고하고 나오라 하였고, 1706년(숙종 32) 右議政이 되었을 때에도 文谷의 훈계를 들어 사양하였으나 숙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夢窩는 당시 老論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尤菴을 두둔하고 尹拯을 극력 배척함으로써 少論과의 시비 끝에 1716년(숙종 42)에는 일시 파직되기도 하였다. 다음 해인 정유년에는 領議政이 되었고, 少論의 의구 섞인 눈총 속에 결정된 世子의 聽政에 찬성하였으며, 景宗이 즉위한 다음에는 右副承旨 金始煥의 논척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1721년(경종 1, 辛丑) 8월 20일 正言 李廷燭가 儲嗣 세울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夢窩는 左議政 李健命, 判中樞府事 趙泰采, 戸曹判書 閔鎮遠 등과 請對하여 建儲를 건의하여 景宗의 윤허와 延礪君(英祖)을 儲嗣로 세운다는 대비 仁元王后의 手筆을 받았다. 이에 少論인 司直 柳鳳輝가, 이정소와 화응하여 독촉하듯 했다며 대신들의 죄를 바로잡을 것을 상소하였다.

10월 10일에는 執義 趙聖復이 상소하여 世弟의 參聽을 청하자 景宗은 聽政하게 하라는 비망기를 내렸다가 左參贊 崔錫恒이 入對하여 청하자 명을 환수하였다. 그러나 13일 景宗이 다시 代理聽政의 명을 내리자 夢窩를 비롯한 대신들은 庭請하여 환수를 청하였으나 景宗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景宗이 자신이 '병이 있어 정무를 보지 못하니 그렇다면 신하들이 보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世弟가 보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하며 계속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지 않자 夢窩, 李健命, 李頤命, 趙泰采 등 이른 바 老論四大臣들은, 少論 崔錫恒, 李光佐의 반대 속에서 庭請 중지를 의논하고, 다음 날인 17일 정유년(1770)에 景宗이 世子로서 代理聽政할 때의 節目에 의해 世弟의 聽政을 거행할 것을 청하는 聯名의 箭子를 올리고 庭請을 중지하였다. 이에 최석항을 비롯한 소론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는데 이날 밤 右議政 趙泰耆가 入侍하자 夢窩를 비롯한 대신들이 뒤따라 들어가 다시 대리청정의 명을 환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景宗이 이를 받아들였다. 12월에 조성복과 연명의 차자를 올린四大臣의 처벌을 청하는 金一鏡, 李鎮儒 등의 상소가 올라오자 승지들이 엄히 통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景宗은 자신의 淺深을 엿본다고 꾸짖으며, 승지들을 파직하고 三司의 신하들을 削黜하였다. 이 과정에서 夢窩는 巨濟에 안치되었고, 竹醉는 囚魁의 아들로 凶謀를 비밀히 도왔다 하여 蔚山으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722년(壬寅) 3월에 노론가의 자제들이 景宗을 제거하기 위해 삼급수, 곧 자객을 보내 암살하는 대급수, 궁녀로 하여금 置毒하는 소급수, 그리고 숙종의 遺詔를 위조하여 폐출하는 평지수 등을 도모하였다는, 陸虎龍의 告變이 있었다. 고변의 내용 가운데에는 竹醉의 아들인 金省行의 이름과 함께, 목호룡이 누설할 것을 염려한 竹醉 등이 李弘述을 사주하여 목호룡을 죽이려 했다는 말이 들어있었다. 이에 4월 10일 金省行이 국청에 갇하게 된다. 17일 景宗은 소론측의 요청에 따라 유배되어 있는, 竹醉의 鞭問과 夢窩의 正刑을 허락하였으나 다음 날인 18에는 夢窩에 대한 正刑의 명을 환수하고 拿鞫하여 情狀을 알아보라 하였다. 21일에는 趙泰耆와 崔錫恒의 청에 의해 夢窩를 正刑 대신 賜死라고 한다. 이에 22일 朴弼夢과 李師尙 등이 夢窩에 대한 賜死는 곧 失刑이라 반대했지만 景宗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賜死 장소는 夢窩가 도착하는 곳에 따라 거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곧 이어 김일경이 다시 正刑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고 만나는 곳에서 거행하라 한다. 다음 날인 23일 다시 正刑의 명을 환수하고 賜死하라고 하였다가 이를 후에는 減死하여 살려 두라 한다. 이에 이사상, 윤희 등이 반대하고, 26일 조태구, 최석항 등이 청하자 減死의 명을 환수하였다. 이처럼 夢窩에 대한 처벌은 拿鞫, 正刑, 賜死, 減死 사이에서 수시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임인유교2>에 드러나 있듯이 夢窩는 유배지인 巨濟에서 押送되어 서울로 올라오던 중 4월 27일 星州에 도착하여 賜死의 後命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28일 저녁 受命하려 하다가 減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멈추었지만 결국 29일 아침 賜死되고 말았던 것이다. 竹醉는 夢窩가 後命 소식을 들은 4월 27일 鞭廳에 잡혀와 아들 金省行이 아홉 차례의 刑訊을 받은 끝에 獄死하는 것을 목격하고,¹³⁾ 6월에 다시 富寧으로 유배되었다가 8월

13) 金省行은 자신이 형장을 이기지 못해 고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역모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우려하여 형신을 받으러 갈 때 下吏에게 부탁하여 머리카락을 뒤에 단단히 묶어 달라 하였다.

에 賜死되었다. 이후 夢窩, 竹醉, 그리고 翠柏軒 金省行은 관작이 회복·추증되었으며 忠獻, 忠愍, 忠正의 시호가 내렸다.

4. 文學的 性格

(1) 敘述的 特性

《遺教》에 수록된 세 편의 글은 상당 부분이 인물들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화법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서술을 객관화하고 장면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대화체의 활용에 의한 서술의 객관화와 장면의 확대가 어떠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세 작품은 서두에서 後命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을 기술한 다음, 당사자와 자질들과의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는 공통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소유소〉의 경우에는 文谷이 아들들, 곧 夢窩 昌集, 農巖 昌協, 三淵 昌翕, 稷齋 昌業, 圃陰 昌緝과 조카 昌直(文谷의 伯兄인 谷雲 金壽增의 3子), 그리고 안시태라는 인물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 澤齋 昌立을 제외한 아들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일을 追懷하고 앞일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임인유교1〉에서는 夢窩와, 조카들인 養謙·致謙·厚謙(三淵의 子),¹⁴⁾ 彥謙·信謙(稷齋의 子), 用謙(圃陰의 子), 사위 閔昌洙(閔鎮遠의 子), 그리고 閔鎮遠, 閔百祥·閔百興(閔鎮遠의 孫), 昌發·昌實(文谷의 庶弟인 壽徵의 子), 李命龍¹⁵⁾ 등과의 대화가 작품 전편을 거의 채우고 있는데 夢窩가 星州에 도착했을 때부터 곁에 있었던 信謙과의 대화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임인유교2〉 역시 竹醉와, 竹醉의 부인인 恩津宋氏, 아들 元行¹⁶⁾·達行, 그리고 언남이를 비롯한 종들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이 글들이 거의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작자 자신이 설명이나 논평과 같은 개입을 적극 배제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려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인유교1〉의 서두에서 시점을 1인칭에서 금방 3인칭으로 바꿔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객관화 지향의 의식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화 지향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서술의 대상이 '집안 어른의 賜死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

14) 金致謙, 金厚謙은 각각 堂叔 金昌國(谷雲의 子)과 季父 澤齋에게 出系하였다.

15) 檜巢의 〈百六哀吟〉을 통해 李命龍이 禅判 李行進의 庶從孫이며, 夢窩의 死後 夢窩를 따랐다는 협의로 黑山島에 유배되었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 金元行은 堂叔인 金崇謙(農巖의 子)에게 出系하였다.

다. 아버지나 백부에 대해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賜死된다는 특수한 상황은, 서술자로 하여금 그것에 개입하기보다는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賜死 당시의 상황, 賜死 당사자의 인품이나 인간적 면모 등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작자 스스로가 인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敘述의客觀化를 통해 독자는 賜死 당사자의 體臭와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① 죽 한숨호시며 니르시되 사름이 죽으면 과연 신령이 아는 일이 있노가 언겸이 그르되 이런 일이 진실노 알기 어렵습거니와 반드시 신령이 업솔 니 업소니 령이 이시면 엇디 아름이 업소리있고 티겸이 그르되 응당 령이 이시나 산 사름으로 더브려 다루기는 감동호리 이시면 응호고 양신은 고요호야 절노 운용호디 아니리이다 신겸이 그르되 이 말이 올소오니이다 만일 사름이 제소호면 령이 엇디 흠향티 아니며 산이 고호면 령이 엇디 모르며 호물며 일과 조손은 더 다를 듯 호니이다 부군이 대답호시시 그려흘 듯 호다(〈임인유교1〉)

② 원횡드려 하시되 석증이 잘 그르티라 죽 호시되 오색과 석증이를 글을 그르티되 비록 과공을 면혀 아냐도 제술을 탁실히 호게 호라 죽 호시되 석증이 정신이 만호니 응당 되리라 죽 그르시되 불상타 내 한강서 석증이가 와 보아지라 호는 거슬 못호얏더니 제 어이내 얼굴을 괴롭호리 석증이가 불상타 원횡드려 호시되 네 고체호 일이 만호니 호시기를 두세 번 호시다 죽 호시되 회석이가 불상타 심히 허수흔 거시 애뻐 엇디 오는고 회석이 불상타 말숨 년호야 호시다 죽 그르시되 원석이이는 병약호고 턱석이이는 사름이 되디 못호야시니 달횡드려 호시되 너는 미양 무려 안기를 못호니 이제란 구용소물이나 쌔 두고 몸 가지기를 낙이라(〈임인유교2〉)

①에서 夢窩는 神靈에 대해 묻고, 조카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夢窩의 물음은 신령이나 영혼의 성격에 대한 토론 제기와는 거리가 멀다. 夢窩는 자기가 죽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한숨을 내쉬면서 영혼이 과연 感知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불쑥 한 마디 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죽음을 눈 앞에 둔 夢窩의,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혼들림을 엿볼 수 있다. 이 순간 夢窩의 마음을 훑싸고 있는 것은, 죽음이란 것에 대한 낯설음과 거기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고뇌였지 영혼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夢窩의 불쑥 튀어나온 물음과 조카들의 진지한 대답의 대조는 오히려 夢窩의 고뇌와 고독을 부각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는 竹醉가 어린 자손들을 당부하고 걱정하는 장면이다. ‘호시되’와 ‘그르시되’로 이어

지는 독백같은, 죽취의 일방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들 漢湖에게 오석¹⁷⁾과 석증¹⁸⁾을 잘 가르치라는 당부를 하다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다섯 살짜리 손자 석증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복받쳐 오른다. 참고 아들을 경계하지만 어린 자손들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다시 참으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을 경계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竹醉의 모습은 기개 있는 사대부와는 거리가 멀다. 단지 자식과 손자를 지극히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일 뿐이다.

이처럼 죽음 앞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고뇌, 자손을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할아버지로서의 번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서술자와 인물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직접화법¹⁹⁾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서술자의 직접 개입에 의한 설명이나 논평은 인물 내면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그것이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상 인물의 외적인 粉飾에 치중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체의 활용은 당연히 장면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면의 확대는 독자로 하여금 호흡을 늦추고 작품 속의 세계에 몰입하도록 한다.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품 세계로의 환상적 몰입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감동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줄곧 賜死 당사자에게 시각을 고정하고 당사자와 주변 인물과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사실 그러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술자는 장면과 장면의 연결 부분에서는 물론 각 장면 내부에서도 시간의 경과와 인물의 움직임을 직접 설명하거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표현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인유교1>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인도하는 引用套語 부분만을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도라 신겸드려 니르시되

신겸이 원명초를 뵈와 ㅋ르되 부군이 보시며 ㅋ르시되

17) 오석, 회석, 원석, 태석은 竹醉 자손들의 儑名인 듯한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18) 석증(碩曾)은 金省行의 아들인 金履長을 가리키는데 竹醉 賜死時 다섯 살이었다. 夢窩가 檜巢의 요청에 의해 '履長'이라는 이름과 '長卿'이라는 字를 지어주는 것이 <임인유교1>에 제시되어 있다.

19) “또 정조드려 니르시되 앗가 쌔고비 분묘일노 아모-네재 분-드려 문답흔 일이 이시되 이제 너드려 다시니르노라(<괴수유수>)”의 경우 文谷이 자기의 아들을 ‘아모’라고 칭했을 가능성이 회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인물의 대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아버님 형장과 형님 묘디에 아모 고줄 고첨 죽 흐오이다(<임인유교2>)”에서도 실제로는 ‘아모 아모’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서술자의 목소리가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거의 모든 대화가 직접화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부군이 그덕여 니르시되

가르터 니르시되

쏘 한숨호시며 니르시되

물론 모든 인용투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가 매우 혼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을 시작하는 인물의 조그만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함으로써 이 작품의 장면들은 멋진 대화만이 교차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진다.

(2) 内容的 特性

문학적 내용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극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은 대상 인물의 인간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더구나 서술자가 개입하여 崇高와 悲壯으로 덧칠함이 없이 인물 자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 숨쉴 때 그것이 주는 감동은 문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遺教》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앞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듯이 죽음에 대한 감회와 술회, 死後의 일에 대한 처리와 당부,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죽음에 대한 감회와 술회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내 인식 극호였는디라 오늘 일은 족히 고이티 아니호되 다만 어려실 적브터 호문의 뜻을
두어시되 디괴 강티 못호야 인순호야 부려시나 그러나 훈 넘녀는 경"호야 일족의 잇디 아
닐 적이 업스와 스스로 혜아리니 즈질이 디경의눈 혹 가히 힘쁠 거시로되 견학호기논 소당
이 아니라 늦거야 더 힘빠 져기 낫기를 부랄가 호엿더니 이제는 멋디 못호계 호여시니 이
거시 훈이로다(〈괴수유소〉)

꽤호고 꽤호다 네 설워 말나 괴수년 전도 적의 등귀-나평강- 션인색 고호여 그르되 드르
니 오시슈 광남 옥소일노 장호 나문홀 의논이 있다 호니 원명초를 아모커나 슈렵호옵소 호
시니 션인이 손을 저어 니르시되 출히 예서 죽을디언녕 어이 촌마 국청의 나아가리오 하시
더니 내 이제 괴태호야 예꼬디 니르러시니 누욕이 불셔 극호거니와 그러나 쏘 어이 이 형상
으로 한장을 건너가 류호고 옥의 나아가리오 예서 슈명호미 도로혀 꽤소로다 다만 괴수년은
우리 형데 다수시 다 무고히 슬하의 뵈서 종효를 호엿더니 나는 훈 제겸이 이시되 부야호로
성손으로 더브러 노폐에 드려 부지 죽성을 서로 아지 못호고 쏘 동궁의 안위를 아디 못호고
붉은 명을 닉어 죽디 못호니 이 진실노 훈 결호미로다(〈임인유교1〉)

식훤탄 성취셔도 이리호시더라 흐더니 과연 올타 소싱을 판단티 못호야셔는 넘녀로 날을
디내더니 이제 죽기야 무어시 무쉽고 무어시 셜우리 내 무술년의 병의 죽어시면 산 사롭 셜
위호기 오늘의셔 덜호라 이러나 쪘려나 죽기는 혼가지니 셜워호야 브절업느니라 쏘 유하의
죽나니도 있고 열 다소 스물의 죽누니도 있고 벼슬 업고 혈속 업시 죽누니도 이시나 나는
벼솔이 지상이오 나히 소십이오 주손이 만호니 군산그튼 죽누니보다가야 소득이 아니 만호
냐(<임인유교2>)

文谷과 夢窩는 後命의 소식을 들자마자 죽음에 대한 감회를 위와 같이 토로하였다. 竹醉는 묵묵히 告訣書 쓰고, 목욕하고,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글씨를 쓰고 난 다음 위와 같은
심회를 토로하였다. 文谷은 因循하여 버려두기는 했었지만 학문에 대한 뜻을 버린 적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 한이라고 하였다. 유배지인 巨濟에서 鞠廳으로
압송되던 夢窩는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고 星州에서 죽게 된 것이 쾌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면서도 그는 아들 竹醉의 사생과 東宮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竹醉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시원하다며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두려움이나 실망, 좌절에 빠져들기보다는
사대부로서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잊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어 지난 일들을 述懷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자세는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文谷은 “내 식량과 지죄 본디 단핍호거늘 오래 아니 이실 디 당호야 힘이 작고 칙임이 등호니 스스로 죄愧 호나 둘히 아닌 줄 알거니와 만일 그 권”히 넘금 소랑호는 정성은
스스로 가히 신명의 질경호리라”라고 하면서 “평생의 쏘호 일즉 상인해를 홀 모움이 업서 전
후의 명을 바다 티옥홀 제 명찰이 멋디 못호문 혹 이시나 이에 용정호야 내드려 전혀 얹어
죽이기로써 쾌히 네이든 실노 촌마 못호 배로화”라고 하여 임금 생각하는 정성에 대한 자부
를 표명하고, 庚申年 獄事 등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씌워진 죄목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夢窩는, 임금의 부름에 한 번 숙배를 아니할 수 없어 출사하였으나 현요한 직책을
피하였고,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告祠堂하고 나오라는 전교가 있어도 여러 번 상소하고 나아가지 않았고, 정승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고절호 양소를 여러 번 올니더 은권이
점” 등호시니 …… 혓도이 정승 일홈만 밧줄느니보다가는 출히 정승 벼솔을 흉공호미 션인
디소를 낫좁는 거시 쏘호 도리라 혼야 민면호야 숙비호고 낫다가 물너오를 구호더 엇디 못
하고 오늘날 일을 만나니 처엄 뜻을 도라보건대 봇그럽고 혼호미 무궁하화”라고 하여 顯要
한 관직에 나아가지 말라는 文谷의 遺訓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竹醉의 경우에는 “어루신니 죄명이 본디 허무흔 거술 얹어낸 일인더 내 그 연좌로 죽
으니 봇그러우미 업고”, “내 옥등의셔 죽어시면 비록 소범이 업서도 놔온 내 진짓 은명이나
잇던가 너길 거시니 내 모움을 표찍디 못호고 종내 암미홀 거시니 이제 이 죽엄이야 아니

다행 흐려”라고 하여 자신에게 씌워진 죄에 대한 입장은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감회와 술회는 士大夫라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문에 대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 한 스럽다든가, 임금에 대한 사랑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든가, 더 이상 국청에서 육을 당하지 않고 죽는 것이 폐하다든가 하는 것 등등은 그들이 사대부로서 지켜온 지조와 기개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자신의 정당함을 토로하는 것 역시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死後의 일에 대한 처리와 당부는 조상, 자신, 후손에 관한 것으로 다시 나눠 볼 수 있다. 文谷의 경우 조상에 관한 일로는 자신이 추진했던 《淸陰集》의 追補를 아들들에게 당부하였고, 큰집 조카 昌直에게는 자신의 부모, 곧 同知中樞府事 金光燦과 그 부인의 遷葬 문제를 伯兄인 谷雲과 조용히 상의하라 하였다. 조상 산소의 천장 문제를 거론하게 된 데에는, 風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닥친 것과 같은 “대단한 지혜 이시면 그 테尼克을 평안이 흐는 도리의 변통호미 업디 못할 거시”기 때문이라 하였다. 자신에 관한 일은 주로 아들들이 먼저 묻고 文谷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데 墓道文字, 文集 刪定, 祭祀, 葬禮 등에 관한 것이다. 文谷은 자신의 墓文을 청할 만한 사람으로 朴世采, 李奮, 尤菴, 그리고 아들들을 거론하였다. 그러면서 朴世采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할까 저어한다고 하고, 尤菴은 혹 과중하게 일걷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인다. 文集 刪定은, 아들들이 산정하고 南龍翼이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면서 분량을 적게 하라고 하였다. 또 제사에 있어서는 제물을 간략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장례 문제에 있어 文谷은 자신을,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 澤齋의 무덤 가까이 묻어 魂魄이라도 서로 의지하게 하라고 하여 막내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숨기지 않는다.²⁰⁾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예상한 梓齋의 계속되는 물음에 대한 文谷의 한결같은 대답은, 자신이 澤齋와 가까이 묻히지 못하고 먼 곳으로 가면 澤齋의 묘를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移葬하여 멀더라도 십수리를 벗어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다. 후손에 대한 당부로는 아들들에게 “독서 종조를 쓴 치 말나 흔니 맛당이 이 뜻을 성각하여 힘써 잘 그르쳐 통효 문헌의 면호를 일터 말게 흐”라 하여 손자들에 대한 교육을 당부하였고 梓齋와 圃陰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夢窩의 경우 조상에 관하여는 致謙에게 자기 高祖妣의 신주를 埋安하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일에 관하여는 治喪은 文谷 때에 준해서 하고, 아들 竹醉가 불행한 일을 당할 듯하니 삼년 궤전은 받들지 말라고 하였으며, 산소는 파주에 쓰고 장단에 있는 부인의 산소를 파주로 옮겨 合塋하라 하였다. 문집이나 묘문 등에 관한 대화가 별반 없는 것은 손자가 죽고 아들마저 국청에 잡혀 있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竹醉는 漢湖에게 夢窩 行狀은 檜巢와 상의하여 하고, 夢窩 文集 刪定은 ‘회경’²¹⁾과 함께

20) 澤齋에 대한 文谷의 사랑은, 澤齋에게 人後한 厚謙에게 옥동 집을 주라고 하고, 澤齋의 誌文을 農巖에 게 지으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라고 하였다. 또 夢窩의 갈석은 漢湖에게 글씨를 익혀 쓰라고 하였고, 夢窩 부인의 갈석은 檜巢가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자신의 墓道文字에 관하여는 鄭灝, 李喜朝, 洪啓迪, 李緯, 尹鳳朝 등을 거론하였다. 자신의 제사는 제물을 간략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후 아버지가 大夫이고 아들이 선비이면 葬事는 大夫로서 하고 제사는 선비로서 하라고 하였다. 竹醉는 누차 부인에게 죽지 말라고 하면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들들에게는 손자, 특히 履長을 잘 가르치고 보살피라고 당부한다.

이와 같이 死後 일에 대한 처리와 당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대개 士大夫家에서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갖춰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식과 손자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고, 또 자기 死後에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사대부라는 사회적 존재로서보다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개아적 존재인데 文谷, 夢窩, 竹醉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들은 사대부라는 사회적 존재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기도 하였지만 집안과 자손의 일에 대해서는 사대부적 면모와 아울러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육형제 가운데 혼자 남은 夢窩는 두 달 전에 세상을 뛴 三淵의 세 아들을 불들고 울기도 하고, 자다가 새벽에 벽을 두드리며 “승지 반드시 연좌를 넘고 옥등의 이셔 玆마크 모른다가 불의에 내여갈 거시니 이 일도 가히 견딜 것가”라고 하며 아들을 걱정하기도 한다. 또 後命傳旨를 들은 후에는 厚謙을 가리키며 “이것들이 연좌를 넘어 멀니 뉴찬호게 되야시니 불상호고 불상호다”고 하고, 信謙이 팔을 불들자 “네 브디 살거라”를 반복한다. 竹醉는 “미양 저를 놈의서 낫게 玆치려 호기로 내 너모 혀다가 저를 죽인 후 뉘웃쁜 일이 만흐니 혼 번 제문이나 혀려 혀더니 못흐니 불상타”라고 하여 獄死한 아들 翠栢軒을 엄하게 가르친 것을 후회하기도 하면서 제문 지어 영혼이라도 위로해 주지 못한 것을 가슴아파 하는 것이다.

자손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수시로 죽음을 앞둔 한 인간으로서의 혼들림과 고뇌를 숨기지 않는다. 文谷은 어릴 적부터 命을 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壽를 누리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회갑에 가깝도록 사는 것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았다고 한다. 또 夢窩는 일찍이 문 밖에서 待命하다가 어느 성 밑에서 後命을 받고 四拜하는 꿈을 꾼 후 마음이 좋지 않아 지금 주상 때에야 이런 일이 있겠는가 스스로 위로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오늘 머무는 집이 성 밑에 있어 꿈과 방불하다며 ‘萬事が 前定이 있는가’라며 탄식한다. 竹醉 역시 “내 평생의 사귐 샹케 혀고 아모거시나 해흘 무룸이 업더니 이려 혀니 아디 못흘다 복설들이라도 팔즈가 무던타 혀더니 복설이 가쇼롭다”고 한다. 談命, 前

21) 陶菴 李緯를 가리킨다. 회경(熙卿)은 陶菴의 字.

定, 卜說 등은 사대부들이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윤운하며 탄식하는 모습에서 죽음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느끼는 그들의 인간적 고뇌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처럼 文谷, 夢窩, 竹醉는 죽음에 대한 감회를 토로할 때에는 기개있는 사대부였지만, 죽음 앞에 혼들리기도 하면서, 자신보다 앞서 간 자식이나, 자신들의 死後에 불행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자손들을 가슴아파 하는 나약한 한 인간이기도 하다. 이것을 三代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양면성이 이들만에 한정된 특수성이나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遺教》에 수록된 세 편의 글이 조상의 언행을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교훈을 삼세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죽음, 그것도 賜死라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 인간 보편의 문제를 適實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遺教》의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5. 結 語

이상에서 살펴 바와 같이 本考는 조선후기 政治的 葛藤의 와중에서 賜死된 文谷, 夢窩, 竹醉의 臨命時 言行을 기록한 《遺教》를 대상으로 그 書誌와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문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遺教》는 자손들에게 조상의 언행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죽음과 마주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는, 가치있는 문학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여러 면에서 좀더 보완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書誌面만 하더라도 〈괴수유수〉의 작자가 누구인지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본 관계에 있는 작품들 가운데 어느 것이 선행본인가 하는 문제 역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의 문학적 특성을 서술의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간략히 검토하는 데 그쳤는데 이 문제 역시 더 정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 實記文學의 性格과 文學史의 意義를 구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